

# 아파트 실내환경 선호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Interior Environment of Apartment—House

박 홍\*\* Park, Hong  
오영근\*\*\* Oh, Young—Keu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ies on the interior environment of the apartments, this study has purported to identify basic elements constituting an appropriate and comfortable interior environment. For analytical purposes, preliminary and main investigation have been implemented, and the questionnaire survey has been conducted on the apartments constructed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five new satellite cities as the objects of evaluation and selected as the analytical object. After analyses of the correlation between dweller's and Interior spaces condition,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There should be conducted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inspections of apartments not only centering around the occupants but also the objective evaluation of environment and functions of the apartments.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이제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우리나라 주택건설은 과다한 수요증대로 인해 공급 물량이 폭증하고 있으나 입주자들의 입장에서 주거공간에 대해 개별적이고 차별화된 요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이후 거의 고정되어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었고 새로운 평면형의 개발도 일부 제한된 시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거주자의 새로운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평면계획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입주자에게 폭 넓은 선택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새로운 주거를 원하는 입주자들의 요구와 그 선호경향을 파악한다는 것은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실내공간에 대한 차별화전략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주요사항이다. 따라서 어느 일정형의 평면형식으로 무조건 생활을 담으라는 것은 경쟁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거주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 분석하여 장래 새로운 아파트 공간구성과 인테리어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와 목적이 있다.

### 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범위 및 진행은 다음과 같다.

(1) 최근 5년 이내에 입주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서울일원(상계동, 중계동, 수서, 강서지구 등)은 물론 수도권 내의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조사대상과 범위를 동서남북으로 고르게 분포시킴으로써 조사의 공정을 기하도록 하였다.

(2) 10개 민영아파트를 대상으로 평형별(20, 30, 40, 50 평형대)로 표본추출하여 조사하였으며 본 연구의 진행은 문헌연구와 현장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국내 아파트의 각 공간별, 부문별 자료를 수집하고 거주자의 생활환경과 주거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눈 두차례의 현장조사(설문, 대담 및 사진촬영)가 실시되었다.

표본조사를 통해 수득된 설문자료는 SAS Package 방식으로 통계 처리 되었다.

## 2. 아파트의 이론적 고찰

### 2-1. 아파트의 정의 및 유래

집단주거양식을 착안하게 된 아파트는 서양에서 산업혁명 이후 도시로 집중하는 노동자들의 숙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는데, 특히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인한 농촌인구의 도시집중 현상과 그에 따른 주택난은 토지의 입체적 이용, 즉 건물과 주택의 고층화(집적화)를 시도하게 만들었다. 즉 주택난에 대한 현대문명의 해결책이 '아파트'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 본 연구는 1994년도 학술연구비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부회장,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교수, 공학박사

\*\*\* 이사, 호서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부교수, 홍익대 건축학과 박사과정

## 2-2. 국내아파트의 도입과 변천

새로운 주거양식으로 발전되어 온 '아파트'는 1960년도를 기점으로 하여 고도의 경제발전을 이룬 우리나라에 소개되자 그 편리성과 기능위주의 '아파트'가 갖는 특성으로 인해 주거선호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은 우리의 전통주거 양식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1970년대 중반부터 서울 등 대도시에서 크게 보급되기 시작한 공동주택으로서의 아파트는 이제 전국적으로 주요한 주거형식으로 정착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화의 대표적 산물로서 주택난 해소에 일조를 하기는 했으나 질적측면에서는 거주자들의 다양한 생활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주거유형의 개발을 위한 접근은 먼저 아파트의 유형적 변천과 평면계획에 대한 문제점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 (1) 1950년대

1950년대의 사회적 배경은 해방이후 6.25를 겪는 동안 약 60만호의 주택이 파괴되거나 멸실된 상황에서 주택을 재건하기 위한 긴급한 대응적 조치가 필요했던 시기였다. 그러나 해방후 정부는 재정사정의 궁핍으로 외국의 원조자금에 의존하여 구조적이며 후생적인 주택정책을 실시했을 뿐 주택건설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기였다.<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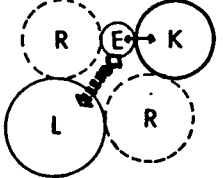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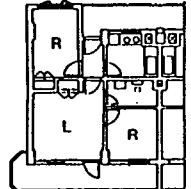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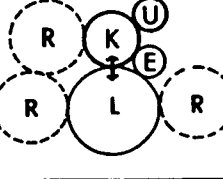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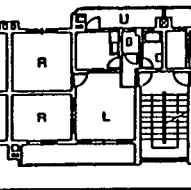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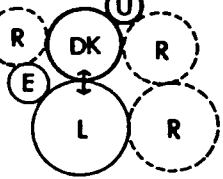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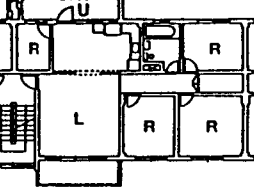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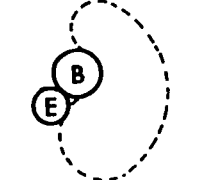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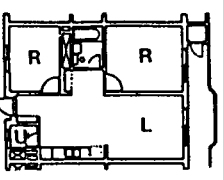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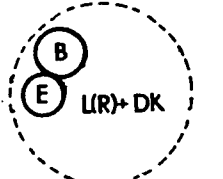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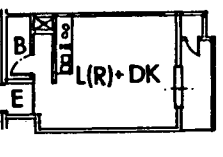
이 시대 아파트의 평면특징은 난방방식이나 취사연료의 문제로 인해 부엌바닥이 다른 방의 바닥보다 낮았으며 부엌의 위치는 인방북측에 설치하는 재래식 배치방법을 취했다.

기록상의 실례로는 행촌아파트(1957), 개명아파트(1959)가 있다.

### (2) 1960년대

평면특징은 기존의 좌식생활이 입식으로 변화되었고, 거실이 독립되어 공공공간, 휴식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 LDK형이 출현하지만 LD나 LDK형이 완전한 기능을 보이지 못했다. 수세식화장실이 등장하였으며, 반침 등을 두어 별도의 가구량을 줄였다. 서민형 아파트가 전체의 주종을 이뤘으며 중형아파트는 그 보급상황에서나 평면구성상에서 완전히 정착되지 못했다. 재래식 평면에서 탈피하여 서구식에 가까운 형태로 발전했으나 실생활과의 괴리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가사공간의 특징은 난방방식의 개선으로 부엌바닥이 다른 실의 바닥과 일치되었고, 부엌의 위치는 욕실과 접근시켜서 설비비를 절감하였다. 부엌과 거실을 접근시켜 LK형식을 취했고, 다용도실이 처음 등장하게 된다. 부엌에 서비스용의 발코니가 설치되나 너무 좁아 장독대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sup>2)</sup>

년 도	형 식	평 면	평면상의 특징
60년대 초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세식 변소의 등장</li> <li>2 거실의 분리</li> <li>3 침실의 완전 분리</li> </ol>
60년대 중.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엌과 거실의 접근</li> <li>2 부엌옆의 서비스 공간</li> <li>3 발코니 등장</li> </ol>
70년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D, K의 등장</li> <li>2 부엌과 거실의 연결</li> <li>3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의 분리</li> </ol>
80년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동식 내부공간</li> <li>2 경량 내벽 구조 (movable partition)</li> </ol>
90년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문화된 공간으로 세분화 (독신자, 3세대, 홈오피스, 재택근무형 등)</li> </ol>

〈그림 2-1〉 아파트 평면의 시대별 특징

1) 김지연, 아파트 가사공간의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원 석론, 1993, p. 4  
 2) 상계서, p. 5

실례로는 마포아파트(1962), 한강공무원아파트(1966), 힐탑아파트(1969), 시민아파트(1967)가 있다.

(3) 1970년대

이 시대의 평면특징은 서민형 위주의 아파트 유형에서 벗어나 중산층 아파트가 증가하자 아파트규모가 확대되어 평면형태가 다양해진다. 중앙난방방식의 보급으로 주거공간과 실내공간이 연결되어 부엌과 거실이 하나의 공간이 되는 오픈플랜의 LDK형식이 정착된다. 50년대말 해당동 연립주택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던 '메조네트(Mesnette)'형이 70년대 중반 한강맨션아파트에 다시 나타난다.

가사공간의 특징은 부엌이 입식화되고 개방되어 LDK형식으로 변화하였고 평수가 커짐에 따라 LDK형이 정착된다.

실례로는 여의도 시범아파트(1971)가 건설되면서 대단위 고층아파트가 시작되고 여의도, 잠실, 반포 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형성된다.<sup>3)</sup>

(4) 1980년대

평면의 특징은 거주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같은 전용면적 내에서도 욕실수와 침실수를 달리한 형태가 등장하게 된다. 각종 자재사용이 고급화 및 옵션제도의 도입으로 자재나 설비부품, 방의 수, 붙박이장에 대한 선택이 가능해진다. 새로운 평면형으로 3세대 동거형, 융통형, 통합형 등이 출현한다.

가사공간의 특징은 3침실인 경우 가사공간의 점유율은 70년대 14.79%에서 80년대 13.31%로 약간의 증가현상을 보이지만 80년대 중반에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주거평면의 다양화로 가사공간의 적정규모가 재정립되었기 때문이다.

실례로는 광명시 하안동 고덕아파트(1982), 동거형 구조가 등장한 목동아파트(1984), 상계동 주공아파트(1985), 86아시아게임 선수촌아파트(1986), 88서울 올림픽 선수촌아파트(1988) 및 올림픽 기자촌아파트(1988) 등이 있다.

(5) 1990년대

90년대는 단위세대의 물량공급 위주 보다는 입주자들의 다양한 심리, 요구 행위가 반영된 주거내부 및 외부공간, 단지, 나아가 주거환경 개선이 전망되고 있다.

실례로는 독신자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실버타운 등이 나타나고 있다.

### 3. 아파트 거주자의 일반적 현황분석

#### 3-1. 조사개요

본 장에서는 공동주택의 실내환경 만족도의 평가를 위한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조사방법으로는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작성함과 아울러 면담과 사진촬영을 병행하였다.

주거 외부 환경	위 치 건 조 고	
주거 내부 환경	동 선 평 면 수납공간 각실의 크기 실의 종류와 갯수	
일반적 특성	디 자 인 색 채 재 료 가 구 조 명	
심리적 특성	지 명 도 부 자 가 치 육 구 만 족 도	

(표 3-1) 분석 기준표

3) 상계서, p. 7

1994년 4월 10일에서 4월 25일까지 연구대상 아파트를 현장답사하여, 설문 및 면담등의 예비조사를 통하여 설문지 질문내용과 구성의 문제점을 파악 수정, 보완하여 본조사에 사용될 조사도구 및 연구계획을 완성하였다.

본조사는 1994년 4월 26일 부터 1994년 6월 25일까지 대상지역에서 설문조사, 면담, 관찰조사, 사진촬영을 하였다.

#### 3-2. 조사대상 거주자의 현황분석

##### (1) 인구학적 현황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별구성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남자의 경우 35-39세가 36.6%, 40-44세가 14.4%, 30-34세가 8.3%를 차지했다.여자의 경우 35-39세가 29.5%, 30-34세가 24.6%, 40-44세가 8.2%였다. 즉 주요 조사대상자층은 남자의 경우 35-44세,여자의 경우 30-39세가 될 수 있다.

##### (2) 사회경제적 현황

사회경제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대주의 학력, 직업, 월평균 가구소득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본 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는 통계청의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비교하였다.

조사결과 남자의 학력은 대졸이상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86.7% , 여자의 학력은 61.8%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도권과 신도시거주자가 비교적 고학력층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자의 직업은 상업, 공업, 서비스업 등 지영업이 31.8%, 5급이상 공무원, 회사의 과장급이상으로 분류된 행정관리가 29.1%,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13.2%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조사결과 150만원 이상이 69.3%로 이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5.6만원과 비교해 볼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3) 주거환경적 특성

주거환경의 특성을 알기위해서는 아파트의 거주기간, 크기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거주기간은 1년이하가 48.3%로 가장 높았고, 1-2년이 24.5%, 2-4년이 18.5%를 나타냈으며, 현재살고있는 아파트의 크기는 30-39평이 가장 많은 42.4%, 20-29평이 25.8%, 40-49평이 17.2%로 대답했다. 이상으로 볼때 조사대상자들은 비교적 국민주택이상의 크기에서 거주한지 2년 미만의 새로지는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거주자에 대한 만족도 분석

수도권 및 신도시의 아파트입주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방대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건축공간에 대한 것은 배제하고 실내공간에 대한 크기, 가구, 색채, 재료, 조명, 설비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1-5)점 scale 화 하였다. 물론 실내공간은 안방, 거실, 주방 및 식당, 욕실, 다용도실로 나누어 조사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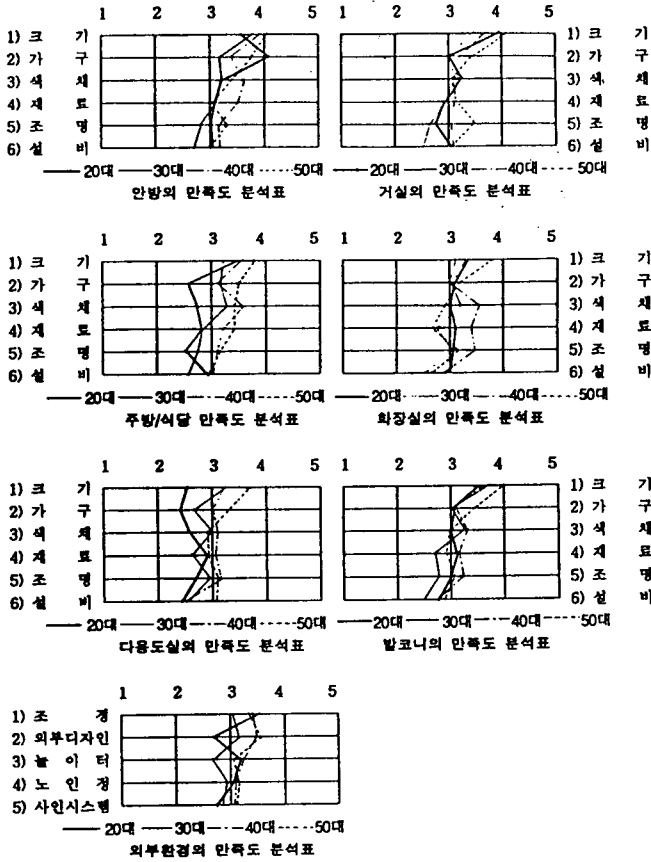
#### 4-1. 주거요소 만족도 분석

##### (1) 남자의 연령별 주거요소 만족도

안방은 20대의 경우 가구(4.083)에 대한 만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다음으로 크기(3.615), 색채(3.384), 재료(3.166), 설비(3.090), 조명(3.000)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0대이상에서는 방의 크기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이상으로 볼때 연령이 낮을 수록 방의 크기 보다는 쓰임새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자녀의 출산등으로 가족수가 늘어나는 30대 이상에서는 방의 크기에 대한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거실은 대체로 크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으나 특히 20

대(3.923), 50대(4.178)에서 높은 선호도를 알 수 있다. 이는 가족 수가 적을수록 거실에 대한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욕실은 전체적으로 크기와 재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나 40대에서는 크기 보다는 색채(3.697), 조명(3.503)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층으로 갈수록 감성적디자인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 남자의 연령별 주거요소 만족도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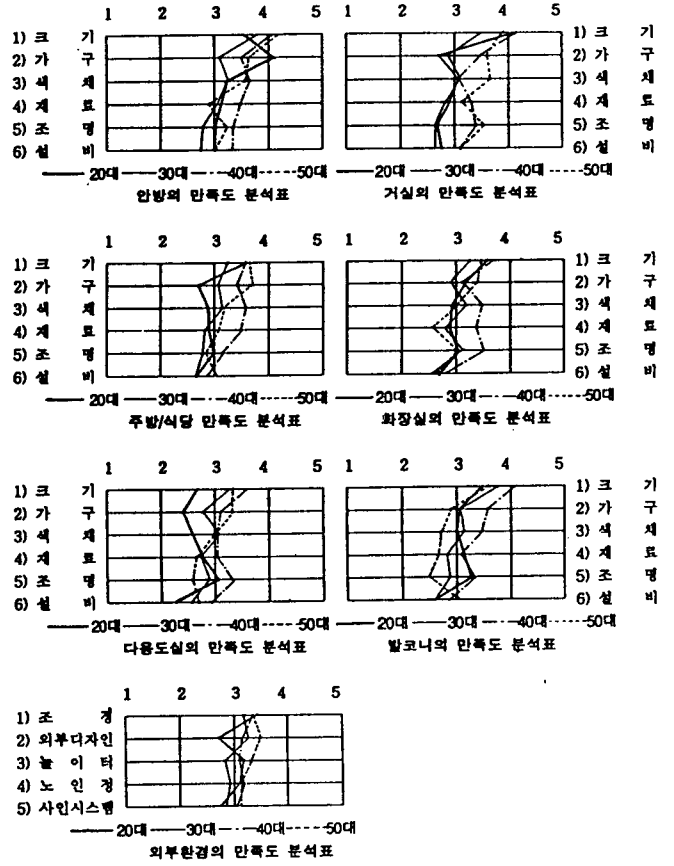
(2) 여자의 연령별 주거요소 만족도

20대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가구(4.103)에 대한 선호도가 크기(3.547)에 대한 것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연령이 높을수록 크기에 대한 선호가 높은 쪽으로 바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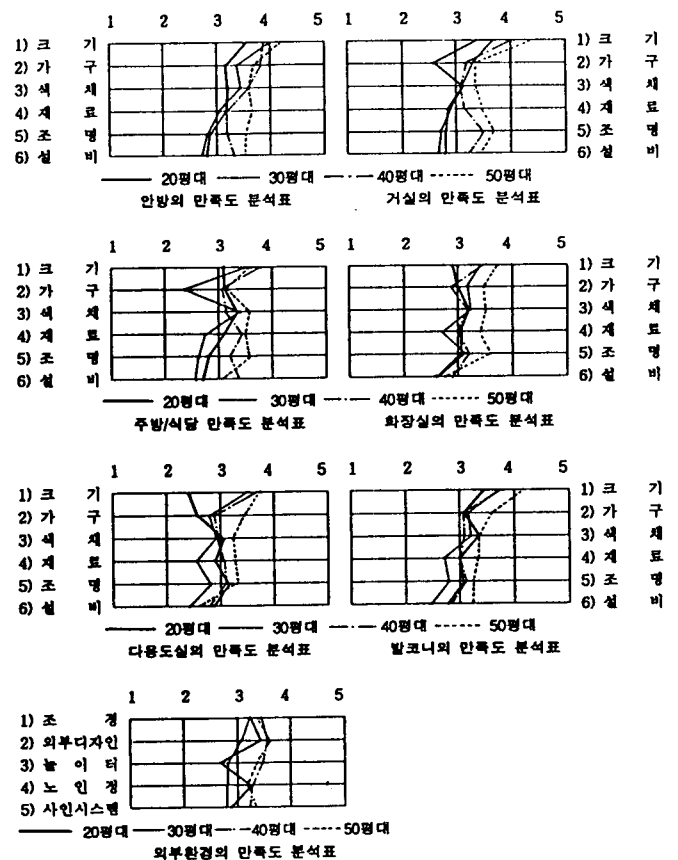
거실은 크기에 대한 선호가 고르게 높으나 40대, 50대가 20, 30대보다 조명에서는 각각(3.325), (3.643)으로, 색채에서도 50대가 (3.714)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감성적인 실내에 보다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방/식당의 경우 20대와 30대 모두 크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반면 40대에서는 색채(3.634)에 대한 선호도가 크기(3.563)보다 높고, 50대에서는 가구(3.845)에 대한 선호도가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볼때 40대 이상의 연령층이 보다 감성적실내를 원하고 있으나, 특히 50대의 고령층에서는 가구에 대한 이용과 애착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거주 면적별 만족도

50평대 거주자는 안방의 크기(4.190)가 20평대의 안방크기(3.660)선호도 보다 높게 나타나고, 거실에서도 50평대 거주자의 크기(4.419)만족도가 제일크고 점차 면적이 작을수록 크기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상에서 볼때 분양면적이 작을수록 공간의 크기 보다는 다른 요소에 더많은 선호를 갖고 있으며 반대로 분양면적이 클수록 실내공간의 다른요소들 보다 크기에 보다많은 만족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욕실에 대한 조사는 50평대 거주자는 크기(3.



〈그림 4-2〉 여자의 연령별 주거요소 만족도의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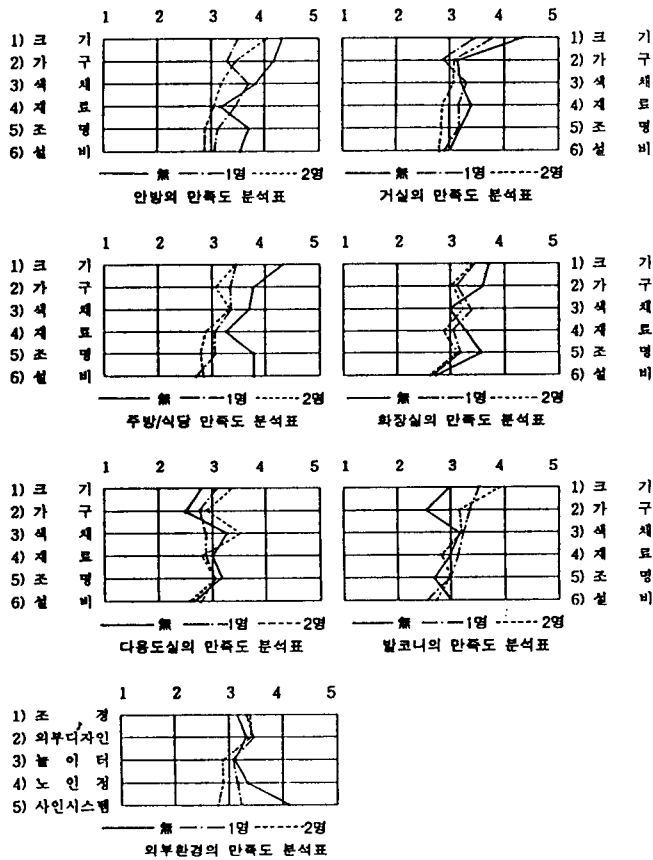


〈그림 4-3〉 거주 면적별 만족도 분석

750), 색채(3.610), 재료(3.417), 조명(3.674)등 비교적 전반적으로 주거요소가 고르게 선호되고 있으나, 20평대 거주자는 크기(2.885) 보다는 오히려 색채(3.250)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이는 제한된 면적에서 욕실에 대한 만족은 거주면적이 적을수록 크기 보다는 색채, 재료, 조명 등에 오히려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4) 자녀수별 주거요소 만족도

자녀수가 많고 적은은 주거만족과 관련이 있다. 이는 자녀가 성장할수록 부부중심에서 자녀중심으로 옮겨가게되는 이유일 것이다. 조사 대상가구의 자녀가 전혀없는 경우, 1명인 경우, 2명인 경우로 크게 나누었다. 자녀가 없는 가구는 안방의 크기(4.250)에 가장 많은 선호를 나타냈으며, 자녀가 많아 질수록 안방의 크기 보다는 색채, 가구, 조명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거실에 대해서도 자녀가 없는 가구는 거실의 크기(4.327)에 가장 많은 선호를 나타냈고, 자녀가 많아질수록 크기보다는 색채, 조명 등에 관심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없거나 적을수록 부부중심의 공간크기에 대한 선호가 높으며, 반대로 자녀가 늘어 날수록 공간의 크기 보다는 가족공동의 관심요소에 보다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4) 자녀수별 주거요소 만족도의 분석

4-2. 평면유형별 만족도 분석

조사지역의 아파트를 평형별로 A-type, B-type, C-type의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성별, 연령별로 각각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1) 남자의 연령별 만족도 분석

20평형 아파트는 남자가 20대일때 B형이 61.54%, A형이 30.77%로 나타났으며, 30대는 B형은 같으나 C형이 비교적 높은 27.69%, 40대는 C형이 34.29%, 50대는 33.33%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적은 면적일수록 복도형 보다는 계단형에 대한 선호가 높으며, 연령이 많아 질수록 자녀수의 증가와 이에 따른 독립공간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방의 갯수를 선호하고 있다.

30평형 아파트는 20대일때 C형이 69.23%, B형이 30.77%를 나타냈고, 30대의 연령층은 C형이 61.54%, B형이 35.38%를, 40대는 C형이 45.71%, B형이 42.86%, 50대에서는 C형이 51.85%, B형이 44.44%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는 젊은층은 비교적 방의 크기 보다는 방의 기능에 선호도가 높은 반면 연령이 많을수록 방의 크기에 선호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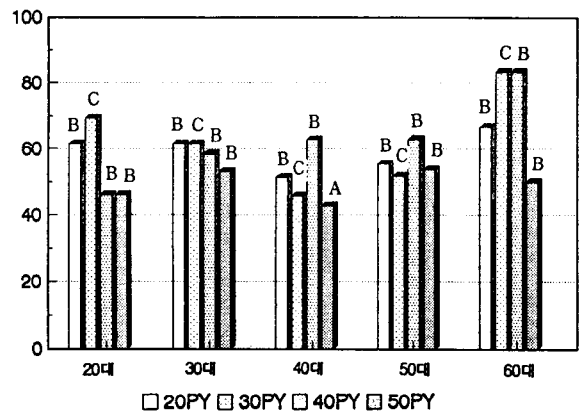
40평형 아파트는 20대에서는 B형이 46.15%, C형이 30.77%를 나타냈고, 30대는 B형이 58.46%, C형이 35.38%를, 40대는 B형이 62.86%, C형이 28.57%를, 50대는 B형이 62.96%, C형이 29.63%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에서 B형이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선호도가 함께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많은 식구가 함께 생활하기 위한 거실이나 부엌 등이 보다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지며 부부중심의 안방에 대한 비중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0평형 아파트는 20대에서 A형이 46.15%, B형이 38.46%, 30대에서는 A형이 35.90%, B형이 51.28%, 40대에서는 A형이 48.39%, B형이 45.16%, 50대에서는 A형이 36.84%, B형이 47.37%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는 연령이 많을수록 집이라는 것의 구획이 아파트평면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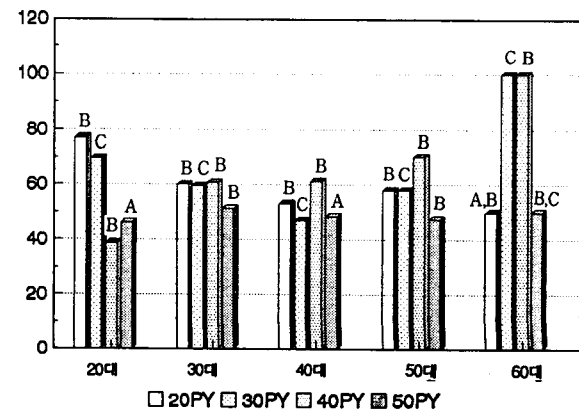
(2) 여자의 연령별 만족도 분석

20평대의 소형면적은 20대 여자는 B형에 대한 선호도가 76.92%로 같은 연령의 남자보다 15.38% 높게 나타났다. 30대에서는 B형이 59.96%로 거의 비슷하였고, 40대도 B형이 53.13%, 50대는 57.89%로 남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B형평면이 C형평면 보다 주방의 프라이버시가 잘 보장된 구성으로 생각된다.

30평대는 20대에서는 C형이 69.23%로 남자와 같았으며, 30대는 C형이 59.49%, 40대는 46.88%, 50대는 57.89%로 연령이 많을수록 남자보다 C형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4-6) 남자의 연령별 만족도 분석



(그림 4-7) 여자의 연령별 만족도 분석

	A 타입	B 타입	C 타입
20평대			
30평대			
40평대			
50평대			

(그림 4-5) 평면유형

40평대는 20대 연령층에서 B형이 38.46%로 남자보다 선호도가 7.69%나 적게 나타났다. A형과 C형은 30.77%로 같게 나타났다. 30대에서는 B형이 60.76%, 40대에서는 61.29%, 50대에서는 70.00%로 연령이 높을수록 B형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연령이 많을수록 여자가 남자보다 안방의 기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0평대는 20대에서 A형이 46.15%, B형이 38.46%를 나타냈고, 30대에서 B형이 51.28%, A형이 35.90%였다. 40대에서 A형이 48.39%, B형이 45.16%를, 50대에서는 B형이 47.37%, A형이 36.84%로 나타났다.

## 5. 결론

우리나라 아파트건설은 주택공급정책에 의해 단기간에 과다한 물량이 공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에 연구목표를 두고 특히 최근에 건설된 수도권 신도시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주자의 주거의식을 조사하였다. 조사에 따른 구체적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권 신도시입주자의 세대주는 대졸이상의 고학력층으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획일적이며 보수적인 기존의 평면구성은 다양하며 개방적인 쪽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2. 안방의 개념은 젊은층의 거주자는 크기 보다는 기능적 가구에 선호도가 높으나, 연령이 많아질수록 색채, 조명과 같은 감성적 분위기

와 크기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부중심의 가정은 안방의 크기 보다는 실내연출에 관심이 높으며, 자녀수가 많을수록 거실과 같은 공용공간의 실내연출에 관심이 높다.

4. 연령이 적을수록 공간의 갯수 보다는 크기에, 연령이 많아질수록 공간의 크기 보다는 갯수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5. 남자 보다 여자가, 또한 연령이 많아 질 수록 안방과 같은 전용공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반대로 여자 보다 남자가, 또한 연령이 적을 수록 거실과 식당 등과 같은 공용공간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1. 대한주택공사, 주택랜드북 (94), 서울, 대한주택공사, 1994.
2. 주택연구소, 주공아파트 입주자 실태조사보고서, 대한주택공사, 1993.
3. 박영기,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에 대한 거주후 평가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7호, 1990.
4. 김지연, 아파트 가사공간의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 석론, 1993.
5. 임상준, 공동주택 실내환경 평가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1994.
6. 통계청, 한국인의 주거실태현황 및 특성, 대한통계협회, 1993.
7. 박홍, 실내디자인론, 서울, 기문당, 1990.
8. 세진기획, 아파트백과, 서울, 세진기획, 1994.
9. 임승빈, 환경심리행태론, 보성문화사, 1991.
10. Norman W. Heimstra, Leslie H. McFarling, Environmental Psychology, CA. Wadsworth Pub. Co., 1974.

(접수 : 1995. 2. 27)